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산대사가 임종하실 때 남긴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천 가지 계획과 만 가지 생각이 불타는 화로 위의 한 점 설날이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천 가지 계획을 세우고 수만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불타는 화로 위에 떨어지는 눈 한 송이에 불과합니다. 화로 위에 눈 한 송이가 떨어지면 흔적도 없이 녹아버리지요. 우리는 그런 눈 한 송이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화로 위에 떨어지는 눈 한 송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로 인한 흔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죽은 자들에 대한 기억도 그들 자체라기보다는 그들에 대한 희미한 상像일 뿐입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는 역사 교과서 등을 통해 기억하려 하지만, 그분들의 삶도 화로 위에 떨어지는 눈 한 송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누구나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불타는 화로 위에 떨어지는 눈 한 송이 같은 것인데 왜 우리는 모든 수고를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고 말이지요. 인간은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덧없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물론 인간 이외의 동물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 직전에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겠지요. 하지만 그 어느 동물도 자신이 덧없는 존재라고 느끼며 살지는 않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본질적 특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이러한 독특한 존재 성격을 ‘실존實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라는 말은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숙명적인 사실을 가리킵니다. 달리 말해 우리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도록 ‘내던져져 있다geworfen’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존재’라는 말은 인간이 ‘항상 의식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으면서 삶의 의미를 묻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대부분은 사회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할 가치’로 통용되는 것들을 자명하게 여기며 생활합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는 자기가 사는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이 자명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①이반일리치라는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회가 상류층을 보다 높이 대우하기 때문에 상류층에 편입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명랑한 사람이 우울한 사람보다는 좋다는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명랑하고 유쾌한 사람이 되려고 했지요. 또한 사회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것을 요구하기에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고, 거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피고들을 대할 때도 겸손해지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의 방식을 하이데거는 ‘비본래적uneigentlich’ 실존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삶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사실은 익명의 ‘세상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자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한 도구인지 아닌지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존재자들은 서로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중심으로 하여 밀접한 지시연관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옷걸이를 설치하고 그것에 옷을 걸 경우, 옷걸이의 목적은 우리가 옷을 구김이 가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옷의 목적은 우리가 그 옷을 멋지게 입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존재자는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관심을 최종 목적으로 지시하며 서로 목적과 수단이라는 지시연관을 맺습니다. 모든 도구적 존재자는 이러한 목적과 수단의 연관 전체 안에서 각자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하이데거는 존재자들 간에 성립하는 목적 수단의 지시연관 전체를 ‘세계’라고 부릅니다. 세계는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들은 각각 다른 세계에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반 일리치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②불치병에 걸리기 전까지만 해도 승진과 높은 보수였기에, 그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이나 관계하는 존재자들을 모두 그 목표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세계를 자명하다고 여기며 살았지만,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인의 감성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는 이반 일리치가 살고 있는 세계와 전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이반 일리치처럼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세계에는 바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꽃들을 비롯한 자연의 아름다움은 물론 진정한 인격체로서의 타인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계에서는 오직 나의

승진이나 즐거움에 도움 또는 해가 되는 수단적인 것들만이 존재할 뿐, 타인이나 다른 존재자들과의 깊은 이해와 ㉞교감에서 오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삶과 세계의 공허함을 느끼게 된 이유는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한계 상황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이런 의미에서 일상적인 삶의 ㉟자명성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세상의 가치로도 환원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우리의 ㊱유일무이한 존재에 직면하게 합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유일무이한 존재로서의 나의 죽음이고,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나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죽음이란 철저히 나만의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 외부로부터 내게 부과되던 모든 낯선 규정, 즉 내가 '세상 사람'으로서 신봉했던 모든 가치는 그 의미를 상실해버립니다. 이와 함께 죽음은 우리가 이제까지 집착해왔던 모든 ㉟세간적 가치의 허망함을 드러내는 극단적인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죽음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집착해왔던 높은 관직과 보수가 허망한 것임을 발견합니다. 또한 자신이 따르던 상류층의 관습과 사고방식을 비롯해 자신의 삶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생존에 있어 사소한 수단에 불과한 재산이나 명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간주하며 살았고, 오히려 진정한 목표로 삼았어야 했던 인간과 사물에 대한 사랑은 수단으로 간주해왔다는 것을 자각한 것이지요. (후략)

-박찬국,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1. 윗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이 자신의 삶을 덧없다고 느끼는 까닭은 인간이 항상 자신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문제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 ② 하이데거에 따르면 익명의 '세상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신봉했던 가치가 의미를 상실됨에 따라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게 된다.
- ③ 이반 일리치에게 있어서 불치병은 인간과 사물에 대한 사랑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한다.
- ④ 시인의 감성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계와 달리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 ⑤ 비본래적 실존으로서 존재하는 인간 역시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2. ㉟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하이데거에 따르면 ㉟ 역시 자신의 존재를 문제삼는 존재이다.
- ② ㉟은 사회적 가치관에 맞춰 자기 자신의 존재에 물음을 던지는 존재방식을 취하고 있다.
- ③ ㉟은 불치병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문제삼게 되었다.
- ④ ㉟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 ⑤ 필자에 따르면, ㉟에게 있어서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존에 있어 사소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3~6] 다음 (가)와 (나)는 하이데거의 견해이고, (다)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의 일부이다. (가)~(다)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들은 죽어 가는 사람에게 다시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며 '위로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는 죽어 가는 사람이 자신의 가장 독자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존재 가능성인 죽음을 은폐하도록 조장할 뿐이다. 이런 위로는 죽어 가는 사람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안정된 생활이 동요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현존재인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도피하지만 그가 비록 명시적으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현존재는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 규정되어 있다.

(나) 죽음은 현존재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존재 가능성이며, 가장 독자적이고 몰고섭적이고 뛰어넘을 수 없는 가능성으로서 드러난다. 현존재는 이미 이 가능성 가운데 던져져 있고 죽음 앞에서 불안에 직면한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일상적이고 평균적인 존재는 퇴락하는 존재로서 죽음 앞의 불안으로부터 부단하게 도피하려고 한다. 죽음에 직면해서 일상적으로 퇴락하면서 회피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비본래적 존재이다. 죽음에 이르는 본래적 존재는 가장 독자적이고 몰고섭적인 가능성 앞에서 회피할 수 없고, 이렇게 도피하면서 그 가능성을 은폐할 수도 없으며 세인의 상식에 맞추어, 해석을 바꿀 수도 없다. 죽음에 이르는 본래적 존재는 자신을 극단적으로 죽음을 향해 *기투 함으로써 죽음의 완전한 실존론적 가능성을 비로소 자기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여 견디어 낸다.

* 기투: 인간이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 스스로를 던짐으로써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

(다) 이반 일리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그 거짓말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그가 단지 아플 뿐이지 죽는 것이 아니므로, 오직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잘 받으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그는 무슨 처치를 하든 고통과 죽음 이외에는 아무 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들 모두가 알고 자기 자신도 아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끔찍한 상태를 생각해 거짓말을 하고, 그도 거기에 참여하길 원하고 강요한다는 사실이 무척 괴로웠다. ...(중략).. 이 거짓말을 제외하고 또는 그 때문인지, 이반 일리치에게 가장 괴로웠던 것은 아무도 그가 원하는 만큼 자기를 가련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후

어느 순간 이반 일리치가 가장 원했던 것은-그 점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웠지만-누구라도 자기를 병든 아이처럼 가련하게 여겨주는 것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어루만지고 달래듯, 자기를 어루만지고, 자기에게 입 맞추고,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길 원했다. 그는 자신이 요직에 있고, 수염이 하얗게 셀 만큼 나이를 먹었으므로,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함을 알았다.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다.

3. 윗 글을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 대부분이 사회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할 가치’로 통용되는 것들을 자명하게 여기며 생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 규정될 수 없겠군.
- ② 사람들이 죽어 가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까닭은 죽음이 일상적인 삶의 자명성을 파괴함으로써 드러나는 세간적 가치의 허망함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이겠군.
- ③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의 현존재는 인간의 실존이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직시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인간의 특성을 의미하겠군.
- ④ 죽음을 은폐하도록 조장하는 태도는 우리의 삶이 비본래적 삶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갖춰야 할 태도이겠군.
- ⑤ 이반 일리치가 불치병에 걸리기 이전에 세간의 가치를 추구한 까닭은 그가 명시적으로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 실존하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4. 윗 글을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퇴락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역시 살아가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항상 죽음의 가능성에 놓여 있다.
- ② 이반 일리치가 불치병에 걸리기 전에 세간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 것은 죽음의 가능성에서 비롯된 불안으로부터 도피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③ 죽음의 완전한 실존론적 가능성으로서 자기의 가능성을 받아들인 사람은 비본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세계에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
- ④ 죽음이 가장 독자적이고 몰교섭적이고 뛰어넘을 수 없는 가능성으로서 드러난다는 것은, 죽음이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유일무이한 존재로서의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⑤ 비본래적 실존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자신을 극단적으로 죽음을 향해 기투할 때 그는 비로소 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 생존을 위한 수단을 삶의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5. 윗글과 (가), (나)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반 일리치가 주변인들의 거짓말을 괴로워하는 까닭은 죽음이 가장 독자적이고 몰교섭적인 가능성 앞에서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이반 일리치의 주변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요인에는 그들이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안정된 생활이 동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 ③ 이반 일리치 주변인들의 거짓말은 (가)에서 언급한 일종의 ‘위로’로, 죽음으로부터의 도피하려는 시도이나 이반 일리치의 괴로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도피는 성공적인 도피가 될 수 없다.
- ④ 이반 일리치가 누군가 자기를 가련하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까닭은 가장 확실한 가능성으로서의 죽음을 직면했을 때 느껴지는 불안감으로 인해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⑤ 이반 일리치가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누군가 자신을 돌봐주기를 바라는 까닭은 그동안 그가 살았던 세계에서 그가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했기 때문이다.

6. 윗 글의 필자가 (가)와 (나)를 참고하여 (다)의 이반 일리치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대가 이토록 괴로워하는 까닭은 그동안 그대가 추구한 가치가 죽음 앞에서는 허망하기 때문이라네. 지금이라도 그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게나.
- ② 그대가 괴로워하면 그대의 가족과 지인들이 슬퍼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괴롭더라도 그대가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가족들도 편안해지지 않겠는가. 기운 내게.
- ③ 세계는 그대가 바라는대로 생겨나는 법이라네. 그대가 괴롭다고 하면 한없이 괴롭고, 괴롭지 않다고 하면 괴롭지 않은 것이라네. 그대가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움을 잊어보는 것은 어떠한가?
- ④ 그대가 죽음을 괴로워하는 까닭은, 그대가 죽음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퇴락적 존재로 전락하기 때문이라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죽음을 향해 있는 한, 퇴락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마음이 평온해질걸세.
- ⑤ 그대가 죽음을 생각할 때 비로소 죽음이 그대 앞에 가능성으로서 생겨나는 것이라네. 죽음에 대한 생각을 버리면 죽음의 가능성 역시 그대 삶에서 물러날지니, 마음을 비우고 정결히 하는 것은 어떠한가?

7. ㉠~㉡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살아날 가망이 없는 병.
- ② ㉡: 서로 접촉하여 따라 움직이는 느낌.
- ③ ㉢: 설명이나 증명을 하지 아니하여도 직관을 통하여 직접 진리임이 밝혀지는 성질.
- ④ ㉣: 오직 하나뿐이고 둘도 없음.
- ⑤ ㉤: 세상 일반적.

[08~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4·19가 나던 해 제철
우리는 오후 다섯 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혜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뿔뿔이 되어 떨어졌다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
회비를 만 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떨어서는 포우커를 하러 갔고
떨어서는 춤을 추러 갔고
떨어서는 허전하게 동승동 길을 걸었다

돌돌 말은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꺾전으로 흘러며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하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늙으로 발을 옮겼다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나)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A]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 윤동주, 「십자가」

8.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경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 모두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어를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순수함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가정형 어조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나)와 달리 특정 시행을 반복하여 화자 내면의 모순된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9. (가)의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과 달리 현재의 시적 화자가 부끄러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② ㉠이 고민하는 ‘사랑과 병역과 아르바이트’는 ㉡이 고민하는 ‘치솟는 물가’와 달리 ‘때묻지 않은’ 고민이다.
- ③ ㉠이 믿었던 ‘정치와는 관계 없는’ 삶은 18년 후 ㉡에 의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이 현재 자신이 속한 공간을 ‘낯설다’고 느끼는 까닭은 ㉠의 처지가 ㉠과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이 ‘또 한 발자국 깊숙이 늙으로 발을 옮기는 까닭은 더 이상 ㉠처럼 할 수 없다는 체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10. (나)의 시인에 대한 <보기>의 (A), (B), (C)를 바탕으로, (나)의 [A]에 대하여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 시인은 예수가 십자가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기도한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마태복음 26:39). 예수는 세 번 반복해서 동일한 기도를 했고 기도하기 전에 “몹시 괴로워”(마태복음 26:37)하며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자신의 실존의 고통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

(B) 예수는 스스로 십자가를 졌지만 신 앞에 선 그는 신의 공정을 기다려야만 했다. 신의 부정은 자신의 부정이고 그로 인한 신의 상실은 자기 상실을 의미한다. 신의 수용 없는 십자가는 자기 고난의 불과하지만 신의 수용을 통한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과 연합이다.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성 앞에서 절망을 하게 된 것이다.

(C) 시인의 절망은 예수가 죽음으로서 인간 예수는 원래의 영원성으로 귀속되고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는 메시야에로의 승화된 희망을 앞 둔 절망이다. 겟세마네에서 예수의 절망은 인간 예수 자신이 인간 자신과 단절과 분열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조정하는 힘,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성으로부터 놓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류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성으로 끌어올리는 데 인간 예수의 죽음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에 대한 절망이다.

- ① (A)와 (C)를 참고할 때, 화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괴로웠다고 보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성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청된 죽음으로 인해 절망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B)와 (C)를 참고할 때, 화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한’이라고 인식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가 영원한 희망에 닿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청되기에 예수가 죽음을 기꺼이 감내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B)와 (C)를 참고할 때, 화자가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피를 흘리겠다고 말한 까닭은 화자는 본인의 희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마찬가지로 신의 수용을 통한 영원한 생명과의 연합이 요청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C)를 참고할 때, 화자가 자신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한 까닭은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 앞에 주어진 절망을 희망으로 승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A)~(C)를 참고할 때, 화자의 ‘피를 흘리겠다’는 자기 희생 의지는 자기 앞에 놓인 실존적 고난과 인류의 구원을 향한 의지를 절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성으로부터 인류를 해방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1.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광규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4·19 세대가 그 때의 이상과 꿈을 잃고 현실적으로 변화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현실의 부조리함을 알면서도 강력히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면서도 쉽게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무력함을 확인하는 도시민들에게 열띤 토론이나 순수한 열정, 혁명에 대한 열기는 제목처럼 모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에 불과 한 것이다. 윤동주의 「십자가」는 일제하의 어두운 현실상황에 굴하지 않고 괴로우면서도 행복한 면류관을 쓰기를 바랐던 시인 윤동주의 순결한 기독교적 세계관과 시인으로서 조국의 밝은 미래를 바라는 비장한 소명의식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난 작품이다.

- ① (가)는 (나)와 달리 부정적 현실에 적응한 화자가 표면에 드러난다.
- ② (나)의 화자는 (가)의 화자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상황으로부터 촉발된 자기 상황에 대하여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가)는 과거에서 현재로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나)의 화자는 외면에서 내면으로 이어지는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시적 화자의 성찰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자신의 소극적 태도를 부끄러워하면서도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나)의 화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괴로움을 제거하여 어두운 현실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 ⑤ (가)의 제목인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서 ‘지나간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하고, (나)의 제목인 ‘십자가’는 현재 상황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서 ‘밝은 미래’를 위한 자기 희생 의지를 의미한다.

12. 다음은 (가)와 (나)의 화자가 나눈 가상의 대담이다. (가)와 (나)의 내용 및 화자의 정서,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가)의 화자: 나이가 들수록 처자식 먹여살리느라 직장에서는 눈치만 보이고, 참 힘드네요.. 젊었을 땐 이런 걱정도 없었는데 말이죠.
- ② (나)의 화자: 젊은들 고민이야 없겠습니까? 저도 가슴이 답답해서 교회 앞 산책이나 좀 갔다왔습니다.
- ③ (가)의 화자: 젊었을 적 느꼈던 군 복무나 연애같은 고민은 이제 별 거 아닌 거 같네요. 참 삶이란 게.. 나이 먹어갈수록 점점 더 위축되는 것같네 그러요.
- ④ (나)의 화자: 괜스레 교회 앞을 서성이며 배회하고 있자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참 부끄럽네요. 삶에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부디 신께서 내게, 내 한 몸 희생해서라도 우리들의 아픔을 거뒀갈 힘과 용기를 주셨으면 합니다.
- ⑤ (가)의 화자: 저도 기도 드러볼까요? 젊었을 때 다짐했던 것처럼, 내 처자식을 먹여살릴 힘과 능력을 달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살게 해달라구요. 지금의 저는 참으로 무능력한 가장이라 부끄럽습니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속된다. 아우슈비츠에서도 일상은 있었다. 수감자들은 적어도 어떻게 살고 죽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으며, 그 선택의 폭은 상당히 다양했다. 그곳에서도 인간은 행위 주체였던 것이다. 그들은 극한 상황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경험했고, 전유했으며, 행동에 옮겼다. 따라서 얼핏 모순적으로 보이는 '아우슈비츠의 일상'은 존재했으며, '아우슈비츠의 일상사' 또한 가능하다. 대체로 역사 서술의 주 대상은 사회 전체나 개인을 움직이는 구조와 힘이지만, 일상사의 관심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어떤 역사적 구체를 생산하고 변형하는지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프리모 레비는 '극한 상황 속의 일상', 즉 '비상한 일상'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공격당하며 무너지고 파멸로 치달아가는 인간성을, 또 어떻게 인간성이 살아남고 소생할 수 있는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분석하였다.

레비는 '회색 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구분으로는 '비상한 일상' 속의 삶의 양태를 제대로 묘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한 삶의 방식은 포기와 순응이었다. 그들 중 살아남은 이는 극소수였다. 그는 이들을 '끊임없이 교체되면서도 늘 똑같은, 침묵 속에 행진하고 힘들게 노동하는 익명의 군중/비인간'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누구인가? 먼저 친위대의 선택을 받아 권한을 얻어 '특권층'이 된 사람들이 있다. 이 '특권층'은 수감자 중 소수였지만,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여주었다. 기본적으로 배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음식이 더 필요했고, 이를 위해 크든 작든 '특권'을 얻어야 했다. 그리고 특권은 그 정의상 특권을 방어하고 보호한다. 예를 들어 막 도착한 '신참'을 기다리는 것은 동료의 위로가 아니라, '특권층'의 고함과 욕설, 그리고 주먹이었다. 그는 '신참'을 길들이려 하고, 자신은 잃었지만 상대는 아직 간직하고 있을 존엄의 불씨를 꺼뜨리고자 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다. '특권층'이 아니면서도 생존 본능에 의지한 채 '정글'에 적응했던 사람들이다. 체면과 양심을 돌보지 않은 그들의 삶은 만인에 맞선 단독자의 고통스럽고 힘든 투쟁을 함축했고, 따라서 도덕률에 대한 적지 않은 이탈과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회색 지대'는 가해자와 희생자, 주인과 노예가 갈라지면서도 모이는 곳, 우리의 판단을 그 자체로 혼란하게 할 가능성이 농후한 곳이다. 그리하여 '회색 지대'는 이분법적 사고 경향에 문제를 제기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호성이 '회색 지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호성의 원천은 다양하다. 먼저 악과 무고함이 뒤섞여 있다. 수감자들은 기본적으로 무고하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다른 이에게 악을 행할 수 있다. '회색인'의 행위는 무고하면서 무고하지 않다는 역설은 여기서 성립한다. 물론 그가 행하는 악과

① 나치가 행하는 악은 분명 차원이 다르다. 또 다른 원천은 행위자의 동기에 있다. 예컨대 구역장은 '특권층'으로 일정한 권한을 가진다. 겉으로는 협력하면서도 실은 저항 운동에 참여하는 소수는 이 권한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저항 조직을 위해 또 다른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회색 지대'를 만들었는가? 첫째, 나치는 인력의 부족 때문에 피억압자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 협력자들은 한때 적이었으므로, 이들을 장악하는 최선의 길은 그들을 더럽혀 공모의 유대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억압이 거셀수록 그만큼 피억압자 사이에서 기꺼이 협력하려는 경향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엄혹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동기로 '회색인'이 된다. 그런데 '회색 지대'의 이런 모호성은 심각한 혼란과 고통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가해자와 희생자가 뒤바뀌고 또 뒤섞이는 상황을 보며, 누구에게도 책임의 소재를 묻기 어렵다고 강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레비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다른 것이다. 그는 인간과 인간성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요구한다. 가해자인 나치는 약하며 피해자인 수감자는 무고하다는 단순한 이분법은 아우슈비츠의 기억을 그저 수동적인 것으로, 통념이 된 화석으로만 만들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답변을 얻기 어려운 문제들을 끊임없이 되묻고 통념을 토대에서부터 문제시하는 데 있다. '괴물'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보고 얼굴을 돌리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은 괴물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13. 윗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우슈비츠의 일상사'는 수감자들 내부 관계에 주목하여 내부 관계가 생산하고 변형해내는 역사적 구체를 중심으로 역사를 연구한다.
- ② 체면과 양심을 저버린 채 수감 생활에 적응한 이들은 대부분 특권층의 폭력에 노출되어 죽었다.
- ③ 레비의 견해에 따르면 특권층이 다른 수감자들에게 행한 악은 어느정도 자발적이었다.
- ④ 특권층으로서 권한을 부여받은 이들이 수감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저항운동을 했다는 사실은 회색지대의 모호성을 시사한다.
- ⑤ 레비의 회색지대 개념은 아우슈비츠의 기억을 이분법적 통념화에 관찰시키는 태도에 비판을 제기한다.

14. ㉠에 대한 레비의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우슈비츠를 회색 지대로 만든 장본인으로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특권층'에게 '특권'을 부여하여 수감자들 간 갈등을 조장했다.
- ② 아우슈비츠의 문제에 대하여 ㉠와 '특권층'의 폭력 모두 폭력적인 하나, 그 수위와 폭력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다른 차원에 놓여 있다.
- ③ 특권층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감자들 간 공모의 유대를 확립하여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 ④ 회색지대의 수감자들 모두가 완전히 무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 악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 ⑤ 수감자들의 도덕률에 대한 타협과 적지 않은 일탈을 기획하여 수감자들 중 일부와 연합하여 아우슈비츠를 관리하고자 했다.

[18~20] 다음 (가), (나)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계몽이란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년 상태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미성년 상태의 책임을 마땅히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은, 이 미성년 상태의 책임이 지성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도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에 있을 경우이다. 그러므로 “과감히 알려고 하라!(Sapere aude)”, “너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하는 것이 계몽의 표어이다.
 - 임마누엘 칸트 지음, 이한구 편역,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 『칸트의 역사 철학』, 서광사, 2009, 13쪽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아렌트가 묘사한 아이히만의 상태는 칸트가 여기서 ‘미성년 상태’로 지칭한 것, 즉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었다. 칸트는 그러한 미성숙이 특정인에게 지워진 운명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초한 결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이히만의 무사유 또한 운명이 그에게 안긴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삶의 태도였다. 그는 다르게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프랭클이 말하듯 인간이 사물(thing)이 아니라 인격(person)인 한에는 “타고난 자질과 환경이라는 제한된 조건 안에서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판단에 달려 있다. ...(중략)..

아이히만 또한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시대의 격랑에 휩쓸린 게 아니라 휩쓸리기로 결의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법정에서, 나아가 인류의 양심의 법정에서 그가 ‘책임’을 추궁받고 단죄된 이유다.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테제는 생각 없는 무책임의 가공할 위험성을 경고한다. 그것은 권력과 다중이 옹호하는, 악의 없는, 익명화된, 소리 없는 악행이다. 이 점은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에 수반되는 책임의 의의를 새삼스레 일깨운다. 인간의 자유는 선에게나 악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허락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얼마큼의 존엄과 품격을 부여할지를 오로지 우리 자신의 의지로 결정해야 한다. 자프란스키의 말을 또 빌리면 “인간의 존엄성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것이다. 그것이 적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되는 곳에서만 존재한다.”

여기서 존엄성을 어떻게, 얼마큼 적용할지는 각자의 책임

성에 맡겨진 문제다. 더욱이 우리의 책임성은 호르몬처럼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노력으로 발휘되는 무엇이다. 그러한 노력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 안의 아이히만’은 우리를 ‘주류’와 ‘대세’의 균질적인 원자로 만들어 무사유가 자양하는 악들의 심연 속에 던져 넣을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이 ‘우리 안의 아이히만’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는 그것을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용서는 면죄를 함의하고, 면죄는 승인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소병철. (2019). ‘우리 안의 아이히만’은 극복될 수 있는가?. 시민인문학, 37, 141-174.

(나)
 아침 티브이에 난데없는 ㉠표범 한 마리
 물난리의 북새통을 틈타 서울 대공원을 탈출했다.
 수재(水災)에 수재(獸災)가 겹쳤다고 했지만, 일순 마주친 ㉡우리 속 세 마리 표범의 우울한 눈빛이 서늘하게
 내 가슴 깊이 박혀 버렸다 한순간 바람 같은 자유가
 무엇이길래, 잡히고 또 잡혀도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빠용처럼
 총알 빔발칠 폐허의 산속을 택했을까
 평온한 동물원 우리 속 그냥 남은 세 명의 드가
 그러나 ㉢난 그들을 옥하지 못한다.
 빠빠용, 난 여기서 감자나 심으며 살래
 드가 같은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동물원 같은 공간이 아닐까
 친근감 넘치는 검은 빨테 안경의 드가를 생각하는데
 저녁 티브이 뉴스 화면에
 사살 당한 표범의 시체가 보였다. 거봐, 결국 죽잖아!

티브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내가 드가?
 - 유하, 「빠빠용-영화사회학」

15.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이히만이 재판에서 추궁받아야 하는 까닭에는 칸트가 언급한 ‘미성년’의 상태는 도덕적이라는 전제가 함의되어 있다.
- ②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무사유가 그의 의지에 의한 행해졌다고 보고 있다.
- ③ ‘우리 안의 아이히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아이히만’을 용서해서는 안되며, 이것은 곧 자기 안의 악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 ④ 필자는 인간의 존엄성은 태생부터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적용해야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다.
- ⑤ 지성은 진정한 계몽을 가능케 하는 필요조건이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16. 다음 <보기>와 윗 글, (가)를 바탕으로 (나)의 ㉠~㉣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근대인은 자신이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외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알았다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는 익명의 권위에 순응하고, 자신의 자아가 아닌 자아를 받아들인다. 그가 그럴수록 무력감은 더욱 심해지고, 그는 더욱 순응할 수밖에 없다. 근대인은 겉보기에는 낙관적이고 창의적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무력감에 압도되어 다가오는 재앙을 마비된 것처럼 멍하니 지켜볼 뿐이다.

피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 같다. 하지만 위안이 되는 그 겉치장 뒤에 깊이 자리 잡은 불행은 간과하는 것은 위험할 것이다.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의미를 잃으면, 인간은 절망에 빠진다. 사람은 육체적 굶주림 때문에도 조용히 죽지 않고, 정신적 굶주림 때문에도 조용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관련된 경제적 욕구만 보고 자동인형이 된 보통 사람의 무의식적인 고통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문화는 그 인간적 토대부터 위협하는 위험을 볼 수 없다. 지도자가 흥분을 약속하고 개인의 삶에 의미와 질서를 준다는 정치적 기구와 상징을 제시하기만 하면, 어떤 이념이나 지도자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문화를 토대부터 위협하는 위험이다. 자동인형 같은 인간의 절망은 파시즘의 정치적 목적을 키우기 좋은 비옥한 토양이다.

- 에리히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 중

- ① ㉠은 자유가 박탈된 동물원 우리 속에서 무기력하게 갇혀있다는 점에서 윗글의 '수감자'들의 모습과 대응된다.
- ② ㉠과 ㉡이 있던 '동물원'이라는 공간은 '자유'를 제한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자동인형'으로 만드는 공간인 동시에 '진정한 계몽'이 실현되기 어려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은 자신의 모습을 ㉡에서 촉발된 '드가'의 모습에 투영하는데, '드가'의 특징을 고려하면 ㉢은 겉보기에는 낙관적이나 실상은 무력한 '근대인'과 같은 속성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은 자유를 위해 '동물원'으로부터 탈출을 감행한다는 점에서 '저항'을 위해 '특권층'이 된 수감자들과 대응되고, 이러한 행위는 '우리 안의 아이히만'을 용서하지 않는 태도와 연관된다.
- ⑤ ㉠이 자유를 추구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하여 윗 글의 '레비'와 (가)의 '아렌트' 모두 '통념과 무사유에 경도되지 않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17. 다음은 윗 글의 필자와 (가)의 '아렌트'가 (나)에 대해 나눈 대화이다. 이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윗 글의 필자: 우리는 일상 속에서 회색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행위의 선악을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화자가 '표범'을 쉽사리 욕할 수 없던 이유도 그 때문이겠죠.
- ② (가)의 아렌트: 하지만 그렇다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순응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화자 본인 의지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의 행위는 무사유에 의한 행위입니다.
- ③ 윗 글의 필자: 동의합니다. 아무리 회색지대에 놓인 개인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는 태도는 필요하니까요. 그의 행위가 선하다고만 볼 수는 없겠지요.
- ④ (가)의 아렌트: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 항상 선택의 주체입니다. 악에 무지한 것도 선택이고, 악을 방종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화자가 드가처럼 자유를 포기하고 안온함을 좇는 것 역시 화자의 선택이었죠.
- ⑤ 윗 글의 필자: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관점에서 보면 '나치'에 협력한 '특권층'의 행동 역시 그들의 선택이었죠. 그렇기에 그들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